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중동 위기, 미 소비자에게 여파 준다
- WSJ: 2월 미 일자리 9만2천개나 줄었다
- WSJ: 최근 수개월간 실업률 추세는?
- Bloomberg: 1월 미 소매 판매 줄어...자동차 판매 감소 탓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일자리 약세와 인플레이 우려로 증시 하락세
- WSJ: 미 국채 금리 상승...투자자들 오일가 상승에 주목

[물류]

- Bloomberg: 호르무즈 해협, IT 경제 국가에 리스크 준다

[트럼프 관세]

- WSJ: 관세 환급 수개월 걸릴 수도

[오일]

- Bloomberg: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브렌트유 90불 상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United 항공 대표 “기름값 오르면 항공료 상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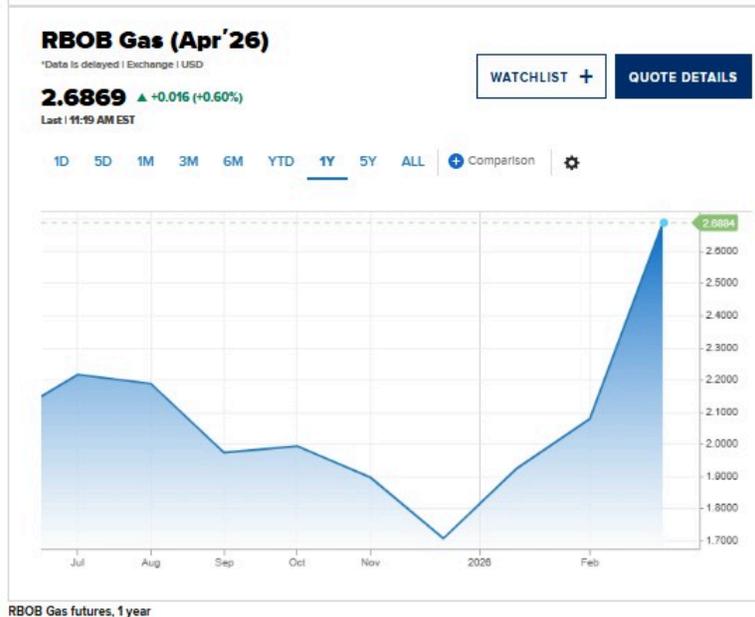
---

[미국 경제]

**CNBC: Here's how the U.S.-Iran war is already hitting consumers' pocketbooks**

**중동 위기, 미 소비자에게 여파 준다**

- 중동 위기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일어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 중동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모기지 금리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전쟁은 군수업체엔 좋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다.
-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25달러로 일주일 사이 27센트 상승했으며,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와 비슷한 상승 폭을 보였다.
-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6% 아래에서 6.1% 이상으로 상승했다.



기사

## WSJ: U.S. Lost 92,000 Jobs in February 2월 미 일자리 9만2천개나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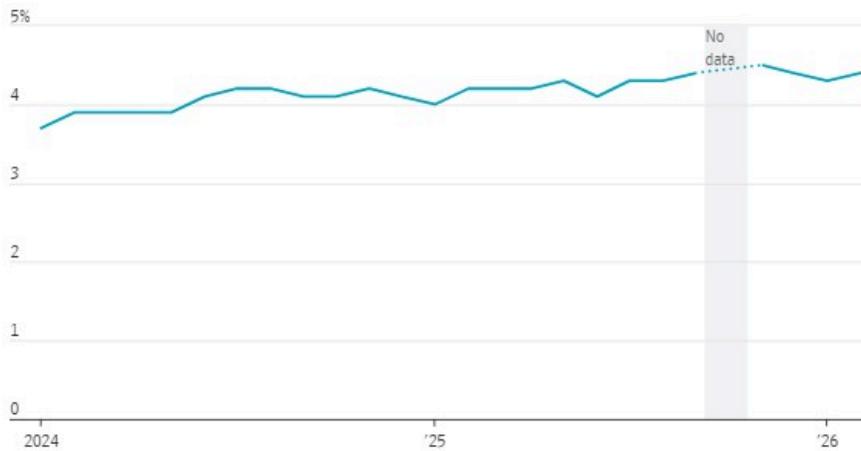
- 연방 노동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민간 부문 고용 숫자가 9만 2천 개 줄었다.
- 당초 전문가들은 5만 개 증가하리라 예상했는데 이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1월에 12만 6천 개가 증가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감소 폭이다.
- 실업률도 약간 올라 4.4%가 되었다.
- 이 같은 숫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인 셈이다.
- 그러나 연준은 고용이 감소해 금리를 내려야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인플레이는 수그러지지 않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WSJ: Here's How Unemployment Has Trended in Recent Months 최근 수개월간 실업률 추세는?

- 2월 미 실업률은 4.4%로 상승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4.3%를 보일 것이라는 수치를 웃돌았다.
- 아래는 지난 2024년 이래 실업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Unemployment rate



Notes: Seasonally adjusted. October 2025 data not collected during government shutdown.  
Source: Labor Department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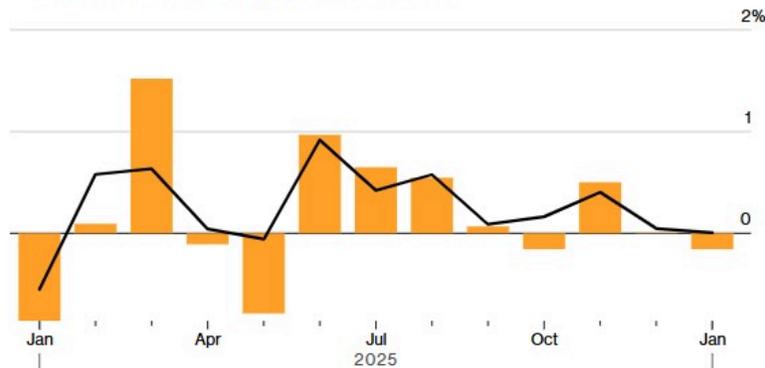
## Bloomberg: US Retail Sales Fell in January on Fewer Vehicle Purchases 1월 미 소매 판매 줄어...자동차 판매 감소 탓

- 1월 미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 자동차 판매 둔화와 겨울 날씨로 소비자 활동이 감소했다.
- 미 연방상무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소매 판매 가격 규모가 0.2% 감소했다. 물론 자동차 판매 둔화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전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 13개 소매 업종 중에 7개 업종 품목 판매가 줄었는데 특히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데다 의류, 가스, 건강, 개인용품 판매도 줄었다.

### US Retail Sales Fell in January Amid Winter Weather

Purchases were held back by weaker car sales as an Arctic blast tempered some activity

Retail sales, excluding cars (line) US retail sales (MoM) (bars)



Source: US Department of Commerc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Sink Amid Weak Jobs and Inflation Jitters

## 미 일자리 약세와 인플레이 우려로 증시 하락세

- 중동 사태로 인한 오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늘 금요일 아침 미 일자리 약세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미 증시는 지난 10월 이래 가장 약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S&P 500은 1.7% 하락했다. 나스닥도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낮은 고용 경제 지표 발표 직후 국채가 잠시 반등했지만 곧 추세가 바뀌면서 10년물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16%를 기록했다.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반영했지만, 금리는 여전히 올랐다.

기사

## WSJ: Treasury Yields Bounce Back, With Investors Focused on Oil Prices 미 국채 금리 상승...투자자들 오일가 상승에 주목

- 국채 금리는 오늘 금요일 아침 일자리 감소 발표 직후 잠시 떨어졌지만 곧 다시 올랐다. 투자자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 주목했기 때문이다.
-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지난주 4% 이하에서 4.1% 이상으로 올랐다.
- 오늘 아침 2월 일자리 보고서에서 미국이 9만 2천 개 일자리를 잃었지만, 분석가들은 간호사 파업과 겨울 날씨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일자리 축소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파업과 날씨 등 일시적인 현상은 금리가 하락하지 않은 이유). 따라서 채권 시장은 금리 전망보다 단기적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사

## [물류]

## Bloomberg: Bloomberg: Hormuz Is the Hidden Risk to the AI Economy 호르무즈 해협, IT 경제 국가에 리스크 준다

- 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선박을 호위하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기IT산업이 의존하는 석유 수송에 핵심적인 지역이다.
- 특히 한국과 대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에 취약한다. 왜냐하면 이는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를 카타르에서 수입해 이들 국가들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 이번 상황은 한국과 대만이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현재의 에너지 정책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 특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사

## [트럼프 관세]

## WSJ: How the Dash to Collect Tariff Refunds Will Play Out

### 관세 환급 수개월 걸릴 수도

- 연방 대법원의 국제 비상권한 경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조치에 무효화 판결을 내렸지만, 기업에 대한 환급(현재 1천3백억 불 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심리 방식 : 법원에서 판사는 2천여 개의 소송 건을 각각 다루지 않고 대표적인 한가지 사례로 환급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 환급 기간: 법적 절차가 빨라도, 세관 환급 과정이 느려서 수개월 걸릴 수 있다.
- 모든 기업이 환급 대상?: 아직 확실치 않다.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소비자도 환급 대상?: 현재 소송은 기업 환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반 소비자 환급 가능성은 다뤄지지 않았다.

기사

### [오일]

## Bloomberg: Brent Oil Hits \$90 as Middle East War Paralyzes Hormuz Traffic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브렌트유 90불 상회

- 중동 사태가 에너지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가운데 브렌트유 선물이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 당 90불을 넘어섰다.
-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5.7%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또한 서부 텍사스 중질유도 지난 2024년 4월 이래 처음으로 85달러를 돌파했다.
- 카다르 외무장관은 중동 사태가 계속되면 오일가는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도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 배럴당 1백 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United CEO Scott Kirby says higher airfare could be ahead after fuel price spike

### United 항공 대표 “기름값 오르면 항공료 상승 가능성”

- 유나이티드 항공사 대표인 Scott Kirby는 항공료 기름값이 상승하면 항공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항공 운항이 중단된 중동 지역을 피해 운항함에 따라 호주 등 다른 나라로 부터의 항공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미국/이스라엘과 인도와의 공격으로 인해 중동 관련 2만 5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